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0



태영그룹 명예회장 윤세영 회장 · 법대 56학번

- 1 2019년도 1학기 입학식 축하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
- 2 나눔의 가치
법대 56학번 태영그룹 윤세영 명예회장
- 4 서울법대 사람들
법대 18학번 김보람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 (로스쿨 10기)
- 6 법학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시작
공익법률센터 개소식
- 7 서울법대 재학 중 동창 프로그램, SNU LAIR의 출발
봄맞이 점심과 커피스테이션
- 7 서울법대 이래 최초의 모의법정대회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 8 법학대학원 소식
- 11 초청강연
- 13 연구소·센터 소식
- 16 공개강좌 소식
- 17 Next Decade 기금 안내
- 18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17.2.-2019.7.

발행일
2019년 8월

발행인
장승화 원장

편집인
임용 학생부원장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책기획단
ke624@snu.ac.kr

기획 및 취재
김경은·이주영 (정책기획단)
강라인·김영서·임수연·정수아·최고은 (학생기자단)

디자인
홍디자인

사진
김경수(SSSauna Studio)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나와 우리의 꿈과 사회적 소명

서울법대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학울 축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앞으로 멋진 강의와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실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신입생 가족 친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법대 신입생 여러분, 우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여러 의미에서 축복받은 최상위 인재들입니다. 입시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왜 본인이 서울법대생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했고, 그래서 기쁘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선택한 우리 법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오늘 당장이 아니라, 3년간 그리고 한 평생 살아가면서 보여 주십시오. 단지 공부만 잘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귀재가 아니라, 이 사회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로스쿨 3년 동안 어떻게 본인을 단련시키고 있는지를 보여 주십시오.

둘째, 명심하십시오. 직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입니다. 로스쿨은 “Professional School”이므로 당연히 졸업 후 직업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맹목적으로, 다른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 지금 좋다고 말하는 직업과 직장 앞에 줄서기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 자신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법대에 입학하였는지를 항상 되새기기 바랍니다. 만약 아무 생각 없이 들어 왔다면, 오늘부터 내가 어떤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어떤 직업과 직장이 자기에게 적합할 것인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적합한 직업과 직장이 눈에 안 띄면,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미래에 어울리는 직업을 스스로 창출하는 개척자가 되어 보십시오.

셋째,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든지, 굵어 죽지 않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은 동기생들과 줄서기를 하면서 항상 맨 앞에 서왔고, 그래야 한다는 습관, 또는 관성 속에 살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3년간의 목표를, “줄 맨 앞에 서기”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올해부터 서울법대는 여러분에게 GPA라는 숫자만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줄서기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나태해지려 할 때 서로 건강한 자극을 주고 받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는 “동반자”이어야 합니다.

넷째,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줄서기 경쟁을 안 해도 되니 3년 동안 법학 공부를 대충 여유 있게 해도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학의 속성상 최소한 로스쿨 3년은, 자신의 지적, 논리적 능력의 극한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를 테스트해 봐야 하는 기간입니다. 로스쿨에서 습득한 기본지식과 리걸마인드는 법률가의 평생의 밑거름입니다. 자신이 로스쿨에서 연마한 리걸마인드의 수준이 평생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체력과 지력의 한계치까지 공부하십시오. 아니, 그 한계치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최선을 다해 해 보십시오. 그런다고 죽지 않습니다. 젊기 때문에.

다섯째,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3년간 무조건 강의실과 개인열람실에서 혼자 공부만 하면 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법대는 변시과목 강의실과 칸막이 친 개인열람실만을 오가기에는 너무도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환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공분야에서 지적 리더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의 다양한 전공선택과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지한 관심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전공별 또는 과외 활동 기회가 넘쳐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공익분야,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현장교육과 사회봉사의 기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교를 떠나기 전에 이 모든 기회와 혜택을 전부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 보십시오. 지금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동기생들이, 십년 이십년 후에는 모두 위치와 모양은 차이가 나겠지만, 빛나는 별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밤에 빛나는 별이 될지, 같은 곳에 모여 어두운 세상의 한 곳을 좀 더 환하게 밝혀줄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함께 걸어 나오며, 관악산 위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와 우리”의 꿈과 사회적 소명을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법대의 일원으로서, 미래의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입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걸맞은 자부심과 책임감을 마음에 품고 우리 서울법대의 한마당 속으로 기운차게 걸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8

제 29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 승 화 원장



본분에 성심으로 노력을 다 하면 결국 ‘진인사대천명’으로 귀결됩니다

윤세영 회장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사회환경에서 고학을 했으며 언젠가 성공하게 되면 장학재단을 만들어 고단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태영건설 창업 후 15년 만에 서암학술장학재단(現 서암 윤세영 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2,200명 이상의 고교생 대학생들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1993년에 설립한 SBS문화재단은 미디어, 예술 및 미래인재 육성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세전 이익의 15%를 문화재단에 쏟고 있다.

“기업 활동과 더불어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기부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부를 통해 내 자신이 얻는 보람이 다시 사업추진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를 통해 더욱 번창한 사업은 더 다양한 기부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를 마친 장학생들이 법조계, 언론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로 꿈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며 제 스스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는 1987년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 서울 법대에 서암관을 기부했다. 지금까지 75억이 넘는 금액을 모교의 발전을 위해 회사했다.

“졸업생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작은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할 정의’를 수호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던 바람은 로스쿨 제도 정착 이후에도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할 뿐입니다.”

이외에도 하버드 대학 연구소 지원 등 국가, 사회, 교육, 문화의 미래를 위해 많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윤세영 회장은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마련했으며 각고의 노력으로 난관을 이겨내면서 서울 법대로 이어지는 명문 수학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법과대학에 입학할 때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대학 2학년 이수 후 58년부터 63년까지 5년간 계속된 군장교 복무 때문에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격동의 시기였던 만큼 장교 임관 후 생활로 책 한 자 보기 어려운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죠. 이런 이유로 제대와 동시에 자연스레 취업전선으로 투신하게 되었는데, 군 복무시절 여러 지휘관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그들의 진취적인 가치관과 리더십을 배우며 체화 할 수 있었던 것이 훗날 사업을 하는 데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법대 출신으로 고시를 한번도 응시하지 못한 기록의 최초 소유자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20

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고시에 도전 해보고픈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73년 태영건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 부터가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여러 고비마다 ‘정직’과 ‘원칙’이 수반되어야 함을 느꼈고 본분에 성심으로 노력을 다 하면 결국 ‘진인사대천명’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는 평소 건강관리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저는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0년 전에는 1년 가까이 PT도 배웠고 요즘도 헬스클럽을 가서 근력운동과 웨이트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해방 후 월남 해 학교에 늦게 가서 동기들에 비해 3살 쯤 나이가 많은데도, 요즘 모임을 해보면 동기들에 비해 건강이 나쁘지 않아요.”

건강 관리와 더불어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의 연장선상에 살아가고 있는 예비 법조인과 후배들에게도 당부하였다.

“우선 목표달성을 위해서 자기 본분을 본심으로 실천하는 습관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도야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궁극의 목표가 ‘행복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자기 본업을 충실히 사는 게 행복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후배들이나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강조합니다. 덧붙여서 저는 현업에 있으면서 책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인문학 서적 등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정책기획단 이주영 외 학생기자 전원



1987년 기부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서암관을 기부하였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이곳을 행복한 공간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늘 학생회에 몸담았던 김보람 학생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의 분쟁들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어야 공동체 속의 개인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진학했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법조인의 꿈으로 이어졌다. 수강했던 과목 중 ‘인권법’과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수업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세상을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보람 학생은 학생회를 출범시키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학생회’를 큰 목표로 세웠다.

“갑작스레 내린 비에도 학우들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양심 우산’을 구비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대처하기 위한 상비약을 마련했어요. 또 문구류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대여 사물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회 건의사항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회는 두 달에 한 번씩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학생회 활동 보고’를 업로드하는 등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자산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좋은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뛰어난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좋은 리더는 완벽해야 했다고 생각했던 김보람 학생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었다고 토로한다. 체육대회 행사

를 기획하면서 강수확률이 0인 날을 행사일로 정했는데도 기어이 비가 와서 야외행사가 취소되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 덕분에, 지금은 스스로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기숙사 취사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께서 ‘학생회분들 고생하신다’는 포스트잇이 붙은 홍삼을 전하고 바람처럼 사라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회 사람들에게는 고맙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김보람 학생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 불합격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시험에 포함되는 과목에만 몰두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안타까워요.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비롯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법학전문대학원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 끈끈한 유대를 맺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역설한다.

“법학을 배울수록 책상에 앉아서 습득하는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좋은 법조인이 되고 싶은 저희로서는, 선배님들의 연륜과 경험을 직접 전해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법대 선배님들을 직접 뵙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0기 김영서 학생기자

1

법학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의 시작: 공익법률센터 개소식

2019년 8월 28일, 우천법학관 2층 다목적홀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개소식이 있었다. 개소식은 개회사, 환영사, 축사, 내외빈 인사, 'SNU Law 공익법률센터의 비전 및 활동' 프레젠테이션, 기념촬영, 폐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적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고 학생들과 더불어 소수자·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을 더욱 활발히 수행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된 공익법률센터는, 사회적 약자 관련 공익소송 및 입법정책, 사회적 기업의 창설 지원, 학내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프로보노 활동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지난 3월 리걸클리닉 전담 객원교수로 김주영 변호사(54·사법연수원 18기)와 소라미 변호사(45·33기)를 채용한 바 있다. 나아가 공익성이 짙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실제 사건을 다루는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난 5월에는 최고법원 변론 클리닉 수강생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열었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공익법률센터는 2019학년도 2학기에 열리는 '여성·아동 인권 클리닉'을 비롯하여 '입법

실무 클리닉', '창업·혁신 지원 클리닉', '다문화·이주 외국인 인권 클리닉' 등 앞으로 더욱 다양한 임상 법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법률센터는 지난 7월 밀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 복지입법 프로보노 캠프를 진행하여 성공리에 마치는 등 법률봉사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총 3일간 진행된 캠프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 교수, 시청각중복장애인, 통역사, 시청각장애인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하여 강연과 레크리에이션 및 야외 체험활동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청각중복장애인과 직접 교류하면서 바람직한 복지입법의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익법률센터는 법률구조의 차원에서 학내 무료 법률상담을 개시하였으며 지역 시민단체를 방문하는 등 이를 관악구 지역사회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익분야 활동 법조인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하버드대 로스쿨과 '공익법률활동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등 학생들의 공익분야 진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0기) 최고은 학생기자



김주영 센터장(우), 소라미 부센터장(좌)

2 서울법대 이래 최초의 모의법정대회,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

제1회 서울법대 모의법정대회가 다가올 11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법대 이래 최초의 모의법정대회라는 점, 선배 법조인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는 점 등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의 총 기획담당인 전원열 교수는 대회의 목표가 “장래의 법률가들에게 ‘토론과 설득’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 선진국들에 비하여 한국 사회의 토론 문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토론을 통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특히 대회 기획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유명한 하버드 로스쿨의 Ames Moot Court를 참조하였다고 한다.

나아가 대회 기획단은 이번 대회가 승패의 거름을 넘어 선후배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본선 및 결승에는 전·현직 대법관 및 현직 법관 등 선배 법조인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미래의 예비 법조인들의 법정 공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3인 내지 5인으로 팀을 이루어야 하며, 본선 진출 팀 가운데에서 우승팀 및 준우승팀과 4강 진출팀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또한 본선 진출 팀들의 서면 가운데 최우수서면과 우수서면, 본선 및 결승의 각 라운드별로 우수 변론자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의 승패를 가를 항목으로는 문제 이해도, 서면 작성의 적정성, 변론의 적정성·창의성,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법정 태도 및 규칙 준수의 적정 등이 고려된다. 전 교수는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될 학생들에게 “법률가는 말의 논리로 타인을 설득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래는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중 발췌한 부분이다.

“현란한 수식이 붙는다고 해서 논리가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의 진술과 뒤의 진술 간의 연결을 탄탄히 다지면서 설명을 한 단계씩 전개해 가는 것이 논리를 펴는 일일 터인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개념 중에서 당해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전제로 동원해야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기존의 개념 자체를 부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논리 전개 중에 약간이라도 비약이 없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어떻게 설명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필수과목인 ‘모의재판’ 수업과 연계되어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모의재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모두 자동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며, 예선전 역시 모의재판 수업 시간에 진행된다. 가상의 사례를 기반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모의재판 수업 방식이 이번 대회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러한 연계는 보다 효율적인 대회 진행을 위하여 이번 대회 기획단이 구상한 방안이다. 학생들이 추가적인 부담 없이 수업 시간을 통하여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진 만큼,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대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0기) 정수아 학생기자

3 서울법대 재학 중 동창 프로그램, SNU LAIR의 출발 봄맞이 점심과 커피스테이션

올 4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봄기운이 물씬 풍겼다. 4월 23일 서암관 로비에서는 ‘봄맞이 점심’ 행사가 열렸다. 교수, 학생, 직원을 포함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승화 원장은 초대의 글을 통해 “중간고사를 마친 휴가분함 속에서 캠퍼스에 가득한 봄기운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인사를 전했다. 임용 부원장은 식사 준비에 도움을 준 졸업생들을 소개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이날 행사는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로 준비되었으며, 많은 구성원이 참석하여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4월 30일에는 법학전문대학원 15동 1층 유민홀 로비에서 ‘커피스테이션’ 행사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은 커피를 받아 15동과 72동 사이 공터, 유민홀, 서암관 로비에 옹기종기 모여 티타임을 함께하였다. 점심시간 직후 수업이나 과제가 있는 학생들은 커피만 빠르게 받아 강의실이나 도서관으로 향하기도 하였다. 행사를 위하여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200잔가량 준비되었으나, 참여의 열기가 뜨거워 빠르게 소진되는 바람에 오후에 60여 잔이 추가로 제공되었다.



서암관 로비 봄맞이 점심 행사

위 ‘봄맞이 점심’ 행사 및 ‘커피스테이션’ 행사는 모두 올해 처음 시행되는 SNU LAIR 프로그램의 일부이다. SNU LAIR 프로그램은 SNU Law Alumni in Residence의 줄임말로, 서울법대 재학 중 동창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Berkeley 로스쿨에서 시행되고 있는 BAI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미래에 서울법대 동창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데 도입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하여 SNU LAIR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학생 때부터 서울법대 선배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봄맞이 점심’ 및 ‘커피스테이션’ 행사 역시 서울법대 동창회 선배들이 중간고사 후 지친 후배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졌다. 재학생들 역시 두 행사에 참여하면서 선배님들에 대한 감사함과 서울대학교 후배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SNU LAIR 프로그램을 통하여 서울법대 동창회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작성 |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11기) 강라인 학생기자

제15회 ASLI 국제 학술대회 개최

2018년 5월 10일(목), 11일(금)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Asian Law Institute(ASLI)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5회 ASLI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미래를 향한 법: 아시아의 시각(LAW INTO THE FUTURE: Perspectives from Asia)”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가는 물론 미국·영국·러시아 등 33개국에서 300명 이상의 법학자들이 참가를 신청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다.

ASLI는 아시아 법학의 발전 및 법학자 간 토론과 교류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 로스쿨이 설립에 참여하였다. ASLI는 매년 법학 분야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학술대회인 연례 시그니처 컨퍼런스(Annual Signatur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제15회 ASLI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대회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커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5월 10일 열린 개회식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홍식 원장은 “이번 ASLI 학술대회가 다양한 문화의 관점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와 대내외 안보를 위협하는 정치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국가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법학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통해 미래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틀 간 형사법, 지적재산권, 건설행정법, 인권, 사법, 경쟁법, 국제법 등 약 20여개의 주제에 대해서 총 58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과 성낙인 총장, 강일원 헌법재판관, 권순일 대법관, 권오곤 한국법학원장의 기조강연도 많은 사람들의 참석 속에 참석자들과 함께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

11일 폐회식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건식 교수의 폐회사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Simon Chasterman 학장이 내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16회 ASLI 국제 학술대회에 대해 예고하였다. “아시아에서 법의

규칙과 역할: The Rule of Law and the Role of Law in Asia”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6회 ASLI 국제 학술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라고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는 인사를 끝으로 이번 제15회 ASLI 국제 학술대회는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기념 특별강연회 개최: 석광현 교수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연구부문) 수상기념 특별강연회가 11월 29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열렸다. 연사는 이번 해에 학술연구상을 수상한 석광현 교수로, <국제사법에서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 EU의 논의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석광현 교수는 외국에서 형성된 법상태를 승인한 EU 사법재판소 판례와 공법분야에서 기원국법원칙의 확산을 소개하며, EU에서 근자에 ‘준거법 지정에 갈음하는 승인’이 대두되고 있고 이것이 기득권 이론의 부활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후 이러한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유럽 학계의 반응과 승인 접근방법을 채택한 전향적 국제사법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국제사법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였으며, 법상태의 승인은 준거법 지정을 배제하지 않는 보완적 접근방법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은 창의적이고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탁월한 연구실적을 낸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인 석광현 교수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법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의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2015년에는 한국법학원에서 제19회 법학논문을 수상하는 등,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등 여러 법률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제4회 학봉상 시상식

제4회 학봉상 시상식이 2018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72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학봉상은 재일동포 실업가 - 학봉 이기학 선생(1928~2012)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상으로, 현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근원적 해답을 탐구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장승화 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종의 교수의 심사경위보고, 한국 KBO 정운찬 총재의 심사평, 시상식, 제3회 연구지원대상자 연구성과 발표, 그리고 이연현 재단법인 학봉장학회 이사장의 학봉상 취지 소개 및 제5회 주제 공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4회 학봉상은 ‘대북 정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하였으며, 논문공모부문 대상 수상작으로는 ‘남한-북한-미국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박천우, 오현정)’이 선정되었다. 또한 논문공모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민족통일론에서 시민통일론으로: 민족주의 통일론의 위기와 대안(노현종)’이, 장려상 수상작으로는 ‘남북 통일합의서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연구(강민식, 김광수)’가 선정되었다.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기념 특별강연회 개최: 이원우 교수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기념 특별강연회가 12월 17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열렸다. 연사는 올해 교육상을 수상한 이원우 교수로, <규제개혁의 딜레마: 법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의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원우 교수는 법의 형식성과 법적 안정성을 축으로 한 중래 규제개혁의 흐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동시에 A사의 공장 증축시 과도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와 부산 금정구 빌라 사용승인 사건을 다루며 각 규제상의 문제점과 법적방법론 관점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법질서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이지만, 행정권과 법관은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이를 실질적 정의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개별적 규제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서울대학교 교육상은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5년 이상 재직 교수 중 높은 수준의 강의와 창의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거나, 학생 지도에 남다른 열정으로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 수상자인 이원우 교수는 2005년부터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센터장으로 재임 중이다. 그 이외에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 등의 직위를 맡으며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법 등의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바탕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8년 12월 20일 오후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은 총 152명으로, 원장단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신입생 입학과 학교생활에 대해 안내하였다. 행사 종료 후 신입생들은 재학생 선배들과 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 1위, 단체 자유상 수상

대법원이 주최한 제10회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상하였다.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23팀, 369명이 참가하여 열린 경연을 펼쳐, 민사 36팀, 형사 36팀이 본선에 진출하였고, 2019년 1월 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결선에서는 민·형사 6개씩 모두 12팀이 실력을 겨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해성·임상일·김재완 학생팀은 형사부문에서 우승하여 ‘가인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해성 학생은 팀 성적과 관계없이 가장 우수한 변론을 한 참가자에게 주는 개인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체부문에서 결선 수상 등 종합 성적이 가장 높은 학교에 주어지는 자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팀 우승

2019년 1월 25일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최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수상을 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47팀(3인 1팀 구성)이 참가하였으며, 그 중 8팀이 본선에 진출해 변론능력을 겨뤘다. 그 결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헬러(조영민, 정재하, 홍준기)’팀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둬 헌법재판소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으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오후 네시(김병국, 홍서현, 홍혜인)’팀이 은상을, ‘슈슈(지은수, 이현영, 류혜비)’팀과 ‘공명(이계민, 임서영, 전수연)’팀이 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실무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배움터

2019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원주시 오코밸리 리조트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새내기배움터가 열렸다. 2019년도에 11기로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학교 소개 및 선배 원생들의 학회 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2018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19년 2월 26일 오후,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2018학년도 법과대학 및 법학대학원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행사는 개회사, 국민이례, 학사보고, 졸업식사, 축사, 일반대학원 졸업생 인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인사, 학위수여 및 시상, 교가제창, 폐회의 순서로 이어졌다.

장승화 원장은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직업과 직장에서 법률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직업 속에서,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심지어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꿈을 현실에서 끈기 있게 펼쳐나가기 바랍니다.”라는 축사를 보냈다.

서울법대 조대연 동창회장 또한 "Fiat justitia, ruat caelum"라는 모교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것을 바라며 졸업생들이 동창회의 일원이 된 것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편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법학박사 10명, 법학석사 31명, 법학전문석사 153명을 포함하여 총 194명에 대한 학위 수여가 이뤄졌다.



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식이 2월 28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임용 학생부원장의 사회로 교수소개, 직원소개, 식사, 축하공연, 교가제창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장승화 원장은 신입생들에게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하며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인재가 될 것”을 당부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법학전문대학원 합창단 SPERO SPERA는 ‘아리랑 모음곡’ 외 2곡을 부르며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는 공연을 하였다. 입학식이 끝난 후에는 각 지도반별로 조별모임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 법학전문석사과정 입학생은 총 152명이다.



2019학년도 박사과정 진학 설명회

2019년 3월 21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권영준 교무부원장의 박사과정 진학 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박사과정 지원 절차와 전형 요소, 법학과 세부 전공을 소개하였으며, 박사과정에서의 교육 내용과 논문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예정된 소개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박사과정 진학에 관심 있는 많은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9학년도 전공설명회: 국제관계법

2019년 3월 28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국제관계법 전공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공설명회에서는 장승화 원장, 이근관 교수, 이재민 교수, 석광현 교수가 연사로 나서 국제공법, 국제통상법 및 국제거래법 등의 분야에서의 진로를 설명하였다.

이근관 교수는 UNESCO에서의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국제공법 분야에서 한국인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많음을 강조하였다. 이재민 교수는 국제통상법 분야의 경우 국제기구, 행정부, 로펌 등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다는

서 국제통상법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석광현 교수는 국제관계 법무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국제거래는 매우 일상적인 일이고 법률가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승화 원장은 첫 직장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법률가가 될 것인지, career path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국제관계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국제분야에서의 전문화 및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2019년 재판연구원 설명회

2019년 4월 5일,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재판연구원 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이승규 판사와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 중인 6기 졸업생 황혜련 재판연구원이 연사로 나섰다.

현재 본교에서 민사재판실무 수업에도 출강하고 있는 이승규 판사는 재판연구원 제도 및 현황과 재판연구원의 장점, 재판연구원 선발절차 및 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승규 판사는 재판연구원을 단순히 법관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법조인으로 경력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자체로 소중한 기회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혜련 재판연구원은 민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대해 설명하며, 실제로 본인이 작성한 신건메모와 의견서, 검토보고서의 예시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후 재판연구원 지원 과정과 부서 배치, 재판연구원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재판연구원에 관심 있는 많은 학우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었다.



2019학년도 전공설명회: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2019년 5월 7일, 우천법학관 201호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전공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공설명회에서는 고학수 교수가 연사로 나서 법조인 진로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임용 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고학수 교수는 의료, 금융 시장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서 새로운 법적 이슈가 대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왓슨의 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의 가격설정을 담합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안면인식 기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차별을 법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등 흥미로운 주제로 강연 시간이 채워졌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법 진로에 관련된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추후 과목 개설이나 소셜 랩 등의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고학수 교수는 궁금증을 가지는 애티튜드가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당부했다.



2019학년도 전공설명회: 지적재산권법

2019년 5월 8일, 우천법학관 201호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공설명회에서는 정상조 교수가 연사로 나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의 세부 전공과 진로에 대해 설명하고, 박준석 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상조 교수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증기기관에 대한 특허를 보호하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있음을 들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 굉장히 중요하며 여러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박준석 교수는 지적재산권법의 세부 전공에 대해 묻는 질문에 관하여 크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분야별 고유한 법리가 있고 실무에서도 매우 다르므로 세부 전공을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법의 장점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넓고 자신이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는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조 교수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상황이 어려워도 결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포기하지 않을 것을, 박준석 교수는 자기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당부하였다.



2019학년도 전공설명회: 경제법

2019년 5월 14일, 우천법학관 201호에서 경제법 전공설명회가 열렸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전공설명회에서는 이봉의 교수가 연사로 나서 경제법 세부영역과 관련 향후 진로, 법학전문대학원 내 전공 트랙을 설명하고, 임용 교수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봉의 교수는 경제법 영역에 속해있는 다양한 세부법들을 설명하고, 향후 경제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나아갈 수 있는 진로를 소개하였다. 법원 행정조세 전담부,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법무법인 공정거래팀, 사내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입법조사관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경제법 업무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일반대학원 경제법 과정에 진학하여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과 전공인증제 제도에 대한 질문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답변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봉의 교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법이 도처에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공정거래 관련 분야로 나아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관련 과목 수강을 통한 기본 지식 습득을 당부하였다.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 개최

외교부가 주최한 제5회 국제법 타운홀 미팅이 2019년 5월 30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제법과 외교의 핫이슈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1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외교부 내 국제법률국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이후 먼 바다 생물다양성(BBNJ) 이슈, 동해 표기 문제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회의 등 최신 국제법 관련 회의 동향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미니특강을 통해 외교부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법과 외교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질의응답으로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강좌 참여 학생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 의견서 제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2019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중 하나인 최고법원변론클리닉은 최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는 전원합의체 사건 (대법원 2016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최고법원변론클리닉은 학생들이 실제 대법원 상고사건,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사건 등의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전일제 객원교수인 김주영 교수(공익법률센터장)과 상근 지도변호사들의 지도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배우자인 남편이 동의하여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와 유전자형이 배치됨이 밝혀진 자녀의 경우 등에도 민법의 친생 추정 규정에 따라 자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아니면 친생추정의 예외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최고법원변론클리닉은 지난 5. 22. 열린 공개변론에 앞서 공개변론 쟁점에 관한 세미나 수업을 가진 후 대법원 공개변론을 동영상으로 참관하였으며 이후 토론을 거쳐 의견서 작성 방향을 결정하였다. 그 후 학생들(김윤진, 박희훈, 김광표)이 작성한 의견서 초안들을 지도변호사가 취합하여 종합한 후 지도교수의 감수를 거쳐 완성된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김윤진 학생(서울대 로스쿨 2학년)은 “대상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결국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의 의미와 친생추정의 예외 인정 범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결론은 가족관계 관련 법제도뿐만 아니라 친자관계에 기초한 상호부양, 상속 등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슈에 관하여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예비법률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해당 클리닉을 이끈 김주영 교수는 “미국 등 해외 유수의 로스쿨에서는 이미 학생들이 리걸클리닉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의 진행에 참여하는 일이 이례적이지 않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특히 예일, 하버드 등 유수의 로스쿨들은 최고법원변론클리닉을 통해 대법원에 법정조언자의견서 (Amicus Brief)를 제출하는 관행이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우리 클리닉의 첫 시도가 로스쿨 임상법학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청강연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제1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가 2018년 9월 20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이 초대 연사로 나서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송상현 전 ICC 소장은 어린 시절 한국전쟁을 겪은 것을 계기로 진로를 결정하게 된 자신의 경험담과 ICC와 같은 국제기구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인류 전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사명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사안이 주어지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법적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을 당부하며 이번 행사는 마무리 되었다. ‘SNU LAW 명사와의 대화’는 기존의 강연형식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수합한 학생들의 질문을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초대 연사의 대담으로 풀어어나가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제2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양창수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제2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가 2018년 10월 11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연사로 나서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권영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과 연사의 대담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양창수 교수는 학자의 길로 오게 된 연유를 시작으로, 외국법과 자국법의 관계, 기존 판례체계와는 다른

방식의 민법 저서를 집필하게 된 이유 등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그는 국내법을 이해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판례를 읽어보고 각 조문이 해석·적용되는 형태를 깊이 탐구하는 방법을 추천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가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상상력과 감수성을 꼽으며,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적 감수성을 쌓기를 당부하며 이번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양창수 교수는 한국 민법학의 권위자로서 수많은 연구논문과 판례평석을 통하여 민법학의 난제를 해결하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제3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손경식 CJ그룹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제3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가 2018년 11월 8일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연사로 나섰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연사와 장승화 법학대학원장은 대담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손경식 회장은 법학을 전공한 후 법조인이 아닌 경영인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 여러 공직을 맡게 된 동기와 경위, CJ의 문화사업 성공 비결, 기업 경영을 하면서 현실과 법이 충돌할 때 가졌던 고민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성공에 도움이 된 본인의 습관으로 ‘근면’을 꼽으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끈질긴 역량과 많이 알려고 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손경식 회장은 1961년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오글라호마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제4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주최한 제4회 ‘SNU LAW 명사와의 대화’가 2019년 5월 28일 우천 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희택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장승화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연사의 대담을 통해 연사가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신희택 위원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법관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변호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한 이유, 학생들에 대한 진로 선택 조언, 서울법대 교수로서의 자신의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성찰할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하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충분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신희택 위원장은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하였으며,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외교통상부 국제투자분쟁 통상고급 민간자문그룹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서울국제중재센터 이사장을, 같은 해 8월부터 현재까지 무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4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 Masami Okino 교수

2018년 3월 12일, '제14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일본 The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for Law and Politics)의 Masami Okino 교수가 연사로 나서 'On the new provision of the Japanese Civil Code on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terms'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Masami Okino 교수는 숙박계약 상 불공정한 면책 조항을 가상의 예시로 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민법에 신설된 정형약관(定型約款)의 편입 조항들을 소개했다. 일본 개정민법은 정형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고 계약의 내용에 편입했다가 배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특징이 있다. Masami Okino 교수는 나아가 일본의 입법 절차를 개관하고, 2017년의 일본 민법 개정 절차를 소개한 후, 본 민법 개정에 대한 비판 및 정형약관과 관련된 입법 문제들을 다루었다.

강연 이후에는 일본 민법의 조항 혹은 그 해석에 따라 정형약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5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 Moritz Vormbaum 박사

2018년 4월 2일, '제15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독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의 Moritz Vormbaum 박사가 연사로 나서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ransitional Justice'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Moritz Vormbaum 박사는 '이행기 정의 (transitional justice)'와 관련하여, 권위주의 혹은 전체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가져오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보복적인 메카니즘 (retributive justice)과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회복적인 메카니즘 (restorative justice)의 두 가지 효과를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이행기 정의 메카니즘의 다섯가지 종류로서 형사기소, 사면, 배상, 진실위원회, 공공부문의 정화를 들며, 각 종류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강연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이행의 경우, 어떠한 이행기 정의 메카니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6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 Weitseng Chen 박사

2018년 12월 12일, '제16회 서울법대 방문학자 초청포럼'이 17동 6층 서암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포럼은 싱가포르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Weitseng Chen 교수가 연사로 나서 'Authoritarian Legality & Economic Development-China, Taiwan and South Korea'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 날 포럼은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Weitseng Chen 교수는 권위주의적 합법성(authoritarian legality)하에서 경제성장(economic development)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민주화를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ast Asian Model'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대만이 공통적으로 과거 정부 주도의 성장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민주화에 기여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Chen 교수는 이와 같은 패턴이 중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며 이번 포럼은 마무리 되었다.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국가주의 및 지방 선거(local election) 등에 관한 질의응답 및 코멘트가 이어졌다.



제46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2018년 3월 21일, '제46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서 '법치주의,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에서 김현 회장은 법치주의의 기원 및 변화 과정,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법치주의 사례, 그리고 법조인들의 활약상 등의 내용을 다루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현 회장은 법조인이야말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면서 '법조인이 무너지면 더 이상 우리사회에 법치주의는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야기했다.

강연 이후에는 AI 등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법조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현 회장은 AI로 인해 법조인의 감성능력이 향상되고, 이로써 변호사는 의뢰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등 새로운 물결이 법조계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불러올 것이라고 답했다.



제47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2019년 5월 3일, '제47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 301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연사로 나서 '법조인으로서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은 법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하여, 현재 변호사의 현실은 어려우나, 법조인으로서 100세 시대를 행복하

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찬희 회장은 법조인으로서 명심하여야 할 세 가지로 인권 감수성, 전문성, 열정과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찬희 회장은 100세 시대에 법조인으로써 가져야 할 마음 자세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 후회 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 언제까지 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며 준비할 것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제48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김재형 대법관

2019년 5월 16일, '제48회 서울법대 초청강연'이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대강당(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초청강연은 김재형 대법관이 연사로 나서 '선과 형평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행사는 연사 소개, 강연,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 날 강연에서 김재형 대법관은 법과 형평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하여, '재외 국민의 국내 거소신고와 주민등록', '삼성전자 LCD 공장 산재 사건' 판례를 통해 형평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판례를 통해 법관의 가치관과 판결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하였다. 또한 교수 시절에 작성했던 〈황금들녘의 아름다움〉이라는 논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대한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대립하는 가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 이후에는 대법관이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대법관이 되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지, 다수의 견과 반대의견의 작성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연구소·센터 소식

제5회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2019년 3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의 제5회 수상자로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이상훈 박사[수상논문: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 제59권 제1호(2018)]를 선정하고 시상식 및 기념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상훈 박사는 수상논문에서,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와 변경에 관하여 『학설취찬』의 제34권 제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로마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수상소감을 통해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의 도움과 성원이 있었고, 선학들의 부단한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을 계기 삼아 후속연구와 함께 법 상속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힘껏 노력하고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는 탁월한 연구를 수행한 학자에게 명예를 부여함으로써 법학계의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을 제정하였다. 이 상은 매년 「서울대학교 법학」에 게재된 논문 중 해당년도 기준 만 50세 미만 또는 부교수 이하인 투고자의 글을 대상으로 추천에 이은 심사를 거쳐 수여하게 된다. 심사위원회는 추천된 글 중 주제의 창의성과 적실성, 연구관점의 참신성 및 연구방법의 논리적 완결성, 연구 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및 학계예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2018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에서는 2018년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프레스룸에서 '공정거래법 형사집행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성신여대 황태희 교수가 '공정거래법상 형사법의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정재훈 교수가 '리니언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고, 부산대 주진열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국장, 서울고등검찰청 김윤후 부부장검사, 김연장 법률사무소 김진오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세미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19년 5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서울대 경쟁법센터·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1세션에서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하였고, 이선희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재훈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윤수현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세션에서는 '경제력집중 완화정책과 사익편취'라는 주제로 홍명수 교수(명지대학교 법과대학)가 발표하였고,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김성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세션 Roundtable Discussion에서는 신현윤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김상조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서승원 상근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2019년 한·중 경쟁법 포럼 컨퍼런스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19년 6월 4일 서울대학교 서암법학관 4층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시대의 경쟁법·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2019 한·중 경쟁법 포럼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의 1세션은 순임 교수(중국정법대학)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데이터 시대에 있어서 한중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로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쉬광요 교수(중국 난카이대학교)가 발표하였고, 윤신승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안신 교수(중국 서북정법대학)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세션은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공유경제의 경쟁법적 이슈'라는 주제로 황태희 교수(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예밍 교수(중국 서남정법대학)가 발표하였고, 강성 부사장(카카오 준법경영실), 래소펑 교수(중국정법대학)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3세션은 천중룡 교수(대만 푸런대학)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플랫폼 경제를 둘러싼 경쟁법의 딜레마'라는 주제로 최난설현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잉더 교수(중국문화대학)가 발표하였고, 정성무 변호사(법무법인(유) 올촌), 류웨이동 변호사(장지구정국덕법률사무소)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였다. Roundtable Discussion에서는 이호영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경쟁법학회장)가 좌장으로 참여하였고, 조성국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성복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 정연아 이사(네이버 법무담당), 첸빙 교수(중국 난카이대학교), 장용중 교수(중국 화남사범대학), 쉬운 박사(중국 난카이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국제학술대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하와이대학교 리차드슨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2018년 9월 7일 제17회 국제학술대회를 미국 하와이 하얏트 리젠시 호텔 쿠 볼룸에서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Kai Rannenberg 교수(Goethe Universität Frankfurt am Main)가 'Enabling Identity Management and Privacy in a Global Context'라는 주제, Kristina Irion 교수(University of Amsterdam)가 'EU Law on Cros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in a Global Perspective'라는 주제, Joe O'Callaghan 변호사(법무법인 Gowling WLG)가 'Inferential Privacy and Artificial Intelligence-a new frontier?'라는 주제, Fred H. Cate 교수(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가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Protection: Observations on a Growing and Unnecessary Conflict'라는 주제,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가 '한국의 데이터 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아울러, 본 행사의 발표내용은 등재학술지인 「경제규제와 법」 제11권 제2호(2018년 11월)의 특집주제로 실렸다.



제68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19년 5월 2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현안'이라는 주제로 제68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희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사회자로 참여하였고,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데이터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시사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가 '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체계 개선과제'에 대하여 각각 발표하였다. 권현영 교수(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현준 본부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 김민호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원명 논설위원(매일경제신문),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가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공익산업법센터에서는 2019년 6월 30일 저널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를 발행하였다.



국제 학술 심포지엄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18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엔난민기구 및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공동주최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난민보호의 강화> 라는 주제로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난민인정 신청의 급증과 함께 제주도의 예멘 난민 문제의 대두 등 국내에서도 난민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지만, 난민과 난민법에 관한 전문적인 이해는 그리 깊지 않은 상황에서 본 학술회의는 언론과 학계 등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본 학술회의는 난민문제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난민인정심사, 난민협약의 해석 등의 여러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제1부에서는 최계영 교수(서울대), 박영아 변호사(공감), 이탁건 변호사(동천), Tim Bowman 참사관 (주한캐나다대사관), Brian Barbour 자문관(AIP)이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난민인정심사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

였고, 제2부에서는 황필규 변호사(공감), 이세련 교수(전북대), 김세진 변호사(어필), Martin Treadwell 부소장(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김지림 변호사(소수자난민네트워크)·이일 변호사(난민인권네트워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난민협약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이후 제3부에서는 '대한민국 난민이슈의 이해 및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좌담회'로서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 향한 이주), 김정도 난민과장(법무부), 박혜경 주무관(국가인권위), 이재호 기자(한겨레21), 채현영 법무관(유엔난민기구), 표현덕 판사(서울중앙지법) 등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경험과 견해를 나누었다.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던 법대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은 온종일 학자, 법률가, 전문가, 학생 등으로 꽉 채워지면서 난민주제에 대한 지적 갈등을 채워주는 장이 되었다.



제9회 모의국제상사중재경연대회 개최

2019년 2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대한상사중재원, 사단법인 국제중재실무회와 서울국제중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주관한 제9회 모의 국제상사중재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전국 규모의 모의국제상사중재 대회로서 매년 4월 비엔나와 홍콩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국제 모의상사중재 경연대회인 Vis Moot Competition 대회와 동일한 문제로 진행되었다. 국내 4팀, 외국 4팀이 참가하였으며 우승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준우승은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가 수상하였다.



‘국제투자분쟁의 최근 동향’ 법무부 신동환 검사 초청강연

국제통상·거래법센터에서는 2019년 4월 25일 법무부 신동환 검사를 초청하여 '국제투자분쟁의 최근 동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개최하였고, 2019년 5월 2일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를 초청하여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법률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로스쿨 학생들 뿐만 아니라 타대학의 학생들도 참석하였고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학습의욕과 동기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금융법센터·한국상사법학회 공동주최 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는 2018년 10월 19일 한국상사법학회와 공동으로 ‘신진학자가 본 상사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준선 명예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회사법/금융·보험법세션으로 나누어 총 10개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쟁 세미나

2019년 1월 18일 웨라톤 서울 팰라스 호텔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주최한 ‘글로벌 기술표준 전쟁’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Jorge L. Contreras (University of Utah) 교수가 ‘The Global Standards Wars: Patent and Competition Dispute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Asia’를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으며 차상욱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영관 선임연구위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시장연구실), 예범수 상무(KT)가 발표를, 한상욱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상준 센터장(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토론회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는 2019년 5월 16일(목), 서울 강남구 메리츠타워에 있는 D2 스타트업 팩토리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사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와 경제 성장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시장경쟁에 주는 시사점 ○AI시대 노동시장의 변화 ○윤리적 AI 실현과 과제 등을 소주제로 개별 연구자들의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최근 AI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급속히 발전하면서 시장경제 지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딥러닝을 지탱하는 것은 빅데이터로 알려진 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양적, 질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데이터 학습 기반의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데이터의 생성과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데이터 정책·규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AI가 노동 보완적인 효과와 직무 창출 효과를 줄 수 있는 한편, 근로자의 관점에서는 기존 직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윤리적 AI 관련 논의와 해외 최신 AI 규범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윤리적 AI의 실현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콜로키움 및 국회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법철학교실>, <한국법제사강독회>, <로마법강독회>, <로스쿨 법철학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법이론연구센터는 2018년 하반기 <콜로키움>을 기초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성과 발표로 기획하였다. 제12회는 송성국 박사가 “법의 여건과 배제적 법실증주의”, 제13회는 송윤진 박사가 “여성의 낙태권은 권리의 이익설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판단에서 이익형량 분석”, 제14회는 김정혜 박사가 “장애인 성폭력 판결문의 양적, 질적 분석”, 제15회는 김민정이 “조선인이 倭館의 물건을 훔치면 어떻게 처벌받았을까?—《續大典》 倭館 절도죄에 관한 일고찰”, 제16회는 손제연 박사가 “인간존엄과 법: 법적 판단에 도입된 인간존엄은 자유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트로이 목마인가?”, 제17회는 손경찬 박사가 “전통법에서의 법원리주의 인정가능성 시론적 검토-情理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법이론연구센터는 2018년 12월 11일(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표창원 주최로,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맘상모가 공동주관하여 <상가임대차분쟁의 효과적 해결 방향>이란 주제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이현경 박사(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 전임연구원)가 “권리금 분쟁의 법리적 속성과 해결원칙: 관행이론의 적용과 ‘2선 당사자론’”을, 강영진 교수(한양대 갈등해결연구소장)가 “상가임대차분쟁의 특성과 조정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황규현(서울시 공정경제와 삼가임대차분쟁조정센터 담당 주무관), 박현정(법무법인 도담 상가임대차소송센터장), 최재석(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임조정위원, 김영리(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공동운영위원장), 박효철(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이 참여했고, 좌장은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분부장이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계, 실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법 정책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년 5월 13일 환경에너지법센터에서는 서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서지역의 마이크로그리드 법 정책 국제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내 환경·에너지법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총 2차례의 환경에너지법정책포럼-New Climate Regime & 4th Industrial Revolution(외교부 유엔철 기후변화대사),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준비 동향과 WWF(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 손성환 이사장)-을 개최하여 환경·에너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의 강연 자리를 마련하였다.



‘반부패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동연구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는 2018년 12월 14일 『반부패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제1세션(반부패제도의 기초)에서 이상원 교수(동 연구소 소장)는 ‘한국 형법상 몰수제도의 한계’를, 이재민 교수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역외 적용과 국제법상 쟁점’을 각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들 각자에 대해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와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2세션(공공분야의 반부패제도)에서 김종보 교수는 ‘건설분야의 부패방지제도, 전종의 교수는 ‘선거분야의 부패방지제도’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들에 대해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김정현 교수(전북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사적 분야의 반부패제도)에서 정순섭 교수는 ‘금융거래와 부패방지—행위규제를 중심으로’를, 그리고 천경훈 교수는 ‘부패 방지와 회사법’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상훈 교수(경북대학교)와 노혁준 교수(서울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3회 SNU-Berkeley Joint Workshop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에서는 2018년 12월 14일 『반부패제도의 현황과 과제』 공동연구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의 제1세션(반부패제도의 기초)에서 이상원 교수(동 연구소 소장)는 ‘한국 형법상 몰수제도의 한계’를, 이재민 교수는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의 역외 적용과 국제법상 쟁점’을 각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들 각자에 대해 김성돈 교수(성균관대학교)와 홍진영 교수(서울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제2세션(공공분야의 반부패제도)에서 김종보 교수는 ‘건설분야의 부패방지제도’, 전종익 교수는 ‘선거분야의 부패방지제도’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이들에 대해 최계영 교수(서울대학교), 김정현 교수(전북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사적 분야의 반부패제도)에서 정순섭 교수는 ‘금융거래와 부패방지 — 행위규제를 중심으로’를, 그리고 천경훈 교수는 ‘부패 방지와 회사법’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상훈 교수(경북대학교)와 노혁준 교수(서울대학교)가 지정토론을 하였다.



공개강좌 소식

제12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수료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8년 11월 28일 제12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의 수료식이 열렸다. 12년째 지속되어 온 국제인권법 공개강좌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인권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고안되었는데, 2018년에는 총 8주간 다양한 주제로 국제인권법관련 학자와 법조인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포함하여 총 6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제30기 수료식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 제 30기 수료식이 2018년 11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SNU-KLI 노사관계 최고지도자과정은 서울대학교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운영한 지 3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노사관계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최고위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2학기 6개월에 걸쳐 매주 강의를 실시하였고 베트남 및 유럽 등지로 해외연수를 시행하였으며, 노동계와 경영계, 공공부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료생 총 56 명을 배출하였다.



제12회 <시민사회와 법의대화> 공개강좌 수료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2018년 12월 12일 제12회 <시민사회와 법의대화> 공개강좌 수료식이 열렸다. 특히 2018년의 <시민사회와 법의대화>는 한국사회의 인권사안 중에서 젠더(gender)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젠더 인권사안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강의가 총 13주간 진행되었다. 수강자들은 시민사회의 활동가,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공무원 및 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총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제28기 수료식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ALP) 28기 과정이 2019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과정에는 법조인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기업 임원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총 39명이 수료하였다.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신탁법의 쟁점' 수료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제12기 수료식이 2019년 6월 1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신탁법의 쟁점’을 주제로 신탁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최근의 디테일한 각 분야 쟁점에 이르기까지 신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다루고 참가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목표로 진행하였다. 총 등록생 46명 중 45명이 수료하였다.



약정 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우편·문자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전화 02.880.7576
팩스 02.889.7196
문자 1666.2930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07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개인	법인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해당기관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여타 기관

예우 안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총장 공관 만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박물관,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법 학 발 전 재 단 및 발 전 기 금 출 연 현 황

2017. 2. 1 — 2019. 7. 31

후원자00067	29,835,483	정지우	60,000	최지석	10,000	이원우	18,000,000
정지우	60,000	정안섭	1,000,000	전일호	10,000	학봉장학회	100,000,000
김진환	10,000,000	임한흠	1,000,000	로스타트	300,000	변성운	20,000,000
전일호	10,000	신동승	10,000	(주)캠브리지유니버서	500,000	송지연	5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BRILL ASIA PTE. LTD.	498,370	로스타트	300,000
신동승	10,000	전일호	10,000	(재)홍진기법률연구	10,000,000	신동승	10,000
정지우	60,000	조홍식	10,000,000	로스타트	300,000	최지석	10,000
학봉장학회	70,000,000	법대41회(83학번)	30,000,000	ASLI	662,000	전일호	10,000
조홍식	10,000,000	신동승	10,000	신동승	10,000	송복은장학회	6,000,000
신동승	1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ALP총동창회	480,000
전일호	10,000	전일호	10,000	전일호	10,000	후원자00764	3,150,000
최지석	10,000	고학수	10,000,000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후원자00764	3,850,000
김민준	15,000,000	고광우	20,000,000	조홍식	5,000,000	안인회	30,000,000
(주)한화생명보험	14,000,000	학봉장학회	50,000,000	조홍식	1,000,000	신동승	10,000
(주)한화	28,000,000	법무법인(유) 지평	12,500,000	로스타트	300,000	최지석	10,000
(주)한화석유화학	14,000,000	후원자00764	100,000	안인회	30,000,000	전일호	10,000
재단법인 청파장학재단	6,649,000	후원자00271	10,000	신동승	10,000	로스타트	1,151,175
한화증권	14,000,000	변성운	20,000,000	최지석	10,000	효원학술문화재단	3,324,500
(주)한화갤러리아	14,000,000	윤진수	6,000,000	전일호	10,000	(주)한화생명보험	14,000,000
한화자산운용	14,000,000	송지연	50,000	장승화	30,000,000	최현진	7,000,000
(주)한화L&C (現 (주)현대L&C)	14,000,000	(주)한화	50,000,000	후원자00065	5,000,000	서암윤세영재단	3,250,000
(주)한화에너지	14,000,000	안인회	20,000,000	NATIONAL	20,425,400	신동승	10,000
(주)한화손해보험	14,000,000	전일호	10,000	로스타트	300,000	최지석	10,000
정지우	60,000	신동승	10,000	신동승	10,000	전일호	10,000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주)한화에너지	14,000,000
ALP25기	30,000,000	송복은장학회	6,000,000	전일호	10,000	(주)한화손해보험	14,000,000
신동승	10,000	감·장법률사무소	16,000,000	ALP27기	30,000,000	한화자산운용	14,000,000
전일호	10,000	학봉장학회	30,000,000	송현정	50,000,000	재단법인 청파장학재단	6,649,000
최지석	10,000	신동승	10,000	(주)진코스텍	6,50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25,000,000
윤태현	6,000,000	최지석	10,000	윤양수	6,000,000	한화증권	14,00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30,000,000	전일호	10,000	윤양수	500,000	(주)한화	14,000,000
전일호	10,000	로스타트	3,014,375	박경조	6,500,000	(주)한화디펜스	14,000,000
최지석	10,000	김미향	100,000	법무법인율촌	1,000,000	(주)한화석유화학	14,000,000
신동승	10,000	(주)한화생명보험	11,000,000	(주)SK	6,500,000	(주)한화L&C (現 (주)현대L&C)	14,000,000
더처치	200,000	정지우	60,000	최현진	7,000,000	(주)한화	14,000,000
학봉장학회	20,000,000	(주)한화	11,00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30,000,000	신동승	10,000
파운트	1,000,000	한화증권	11,000,000	SK하이닉스	6,500,000	최지석	10,000
감·장법률사무소	3,981,338	반평규	6,500,000	산업은행	6,500,000	전일호	10,000
신동승	10,000	(주)한화디펜스	11,000,000	서석해	6,500,000	학봉장학회	30,000,000
최지석	10,000	국립암센터	6,500,000	서암윤세영재단	6,500,000	장승화	5,187,880
전일호	10,000	서암윤세영재단	6,500,000	현대모비스	6,500,000	신동승	10,000
Eyagi (이야기) CAFE	22,500,000	동남회계법인	6,500,000	(주)이마트	6,500,000	최지석	10,000
ALP26기	167,500,000	(주)한화	11,000,000	(주)LG상사	6,500,000	전일호	10,000
이범재	1,000,000	(주)한화L&C (現 (주)현대L&C)	11,000,000	한형덕	1,000,000	후원자00764	4,000,000
정지우	60,000	(주)한화에너지	11,000,000	로스타트	300,000	김준영	1,000,000
전일호	10,000	한화자산운용	11,000,000	KB/김남일	6,500,000	이근관	3,000,000
신동승	10,000	(주)한화손해보험	11,000,000	KT01경영관리부문	6,500,000	박성근	1,000,000
최지석	10,000	(주)한화석유화학	11,000,000	(주)포스코건설	6,500,000	법무법인 서울	1,000,000
안인회	1,500,000	(주)더맨	6,500,000	(주)한화	20,000,000	원우현	1,000,000
안인회	2,000,000	텔코웨어주식회사	6,500,000	(주)한화디펜스	20,000,000	이재원	1,000,000
안인회	30,000,000	(주)태영건설	6,500,000	(주)한화손해보험	20,000,000	장승화	5,187,880
조홍식	10,000,000	NH농협손해보험	6,500,000	(주)한화에너지	20,000,000	후원자00746	1,000,000
후원자00065	5,000,000	이순학	6,500,000	한화자산운용	20,000,000	Eyagi(이야기) CAFE	22,500,000
대정장학회	40,000,000	양재완	6,500,000	(주)한화첨단소재	20,000,000	전일호	10,000
전일호	10,000	전일호	10,000	(주)한화케미칼	20,00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한화투자증권	20,000,000	김유	300,000
신동승	10,000	신동승	10,000	(주)한화	20,000,000	김준영	10,000,000
조범제	50,000,000	최현진	7,000,000	(주)한화생명보험	20,000,000	김현	10,000,000
정지우	60,000	신한은행	6,500,000	한국수자원공사	6,500,000	익명	1,000,000
(주)한화손해보험	19,000,000	신인식	6,500,000	재단법인 청파장학재단	6,649,000	안인회	10,000,000
이재민	3,512,500	현대자동차	6,500,000	(주)SK텔레콤	6,500,000	장승화	5,187,880
서암학술장학재단	9,750,000	조홍식	10,000,000	(주)롯데비피화학	6,500,000	후원자00764	550,000
신동승	10,000	(주)조이렌트카	6,500,000	NATIONAL	58,030,000	후원자00764	5,500,000
최지석	1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10,000,000	(재)효원학술문화재단	3,149,000	신동승	10,000
전일호	10,000	학봉장학회	20,000,000	(주)미래에셋대우	6,500,000	전일호	1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30,000,000	한국수자원공사	6,500,000	교보생명보험	6,500,000	최지석	10,000
(주)한화L&C (現 (주)현대L&C)	19,000,000	LG유플러스	6,500,000	로스타트	300,000	후원자00764	1,000,000
(주)한화	19,000,000	이원우	3,600,000	신동승	10,000	후원자00764	550,000
한화증권	19,000,000	(주)LG상사	6,500,000	최지석	10,000	윤근수	4,000,000
(주)한화디펜스	19,000,000	ALP26기	30,000,000	전일호	10,000	박미례	50,000,000
재단법인 청파장학재단	6,649,000	(주)포스코에너지	6,500,000	감·장법률사무소	3,981,844	후원자00760	2,000,000
(주)한화생명보험	19,000,000	이승호	6,500,000	로스타트	300,000	ALP28기	30,000,000
(주)한화석유화학	19,000,000	(주)BGF리테일	6,500,000	김화진	653,800	장승화	5,187,880
(주)한화	19,000,000	(주)CJENM	6,500,000	신동승	10,000	서경환	1,000,000
한화에너지(주)	19,000,000	조수현	10,000,000	최지석	10,000	후원자00764	550,000
한화자산운용	19,000,000	예금보험공사	6,500,000	전일호	10,000	강민구	50,000
故 현홍주	10,000,000	(사)한국도선사협회	20,000,000	로스타트	300,000	이범재	1,000,000
김건식	30,000,000	신동승	10,000	신동승	10,000	국민수	5,000,000
故 현홍주	10,000,000	최지석	10,000	최지석	10,000	김문석	500,000
이근관	3,000,000	전일호	10,000	전일호	10,000	국민수	5,000,000
신동승	10,000	SKT	6,500,000	조현일	3,000,000	김문석	500,000
최지석	10,000	이범재	1,000,000	석광현	6,000,000		
전일호	10,000	로스타트	155,083	손제연	3,000,000		
이계정	1,912,000	신동승	10,000	법무법인(유) 지평	12,500,000		

SNU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Tel. 02-880-7576
Fax. 02-889-7196

<http://law.snu.ac.kr>